

### 안철수, 내일 금태섭과 제3지대 단일화 논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논의에 대해 “전화를 했고 구체적 일정들을 서로 논의해보자고 해서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문화예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금 전 의원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는 질문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긍정했다.

이야기가 추가로 오간 게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서로 만날 약속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극배우들과 한국생활연극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공연장에서 피어오르던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도 비판하고 나름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뒤늦게 받아들여져 다행이지만 참 아쉽다”며 “무조건 사회가 정지되게 막는 게 아니라 공연 가능한 방법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이 해야 할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편할 때”라며 “밀집과 밀접, 밀폐 개념을 적용해 같은 공간의 사람들끼리 거리와 환기 기준만 지키면 업종과 상관없이 활동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개발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지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공연 예술계는 빠졌지 않나. 지난 1년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그 분야에 대해 현실성 있게 정책을 바로잡고자 찾아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野, 거짓 토대로 文대통령 ‘이적행위’ 공격...책임져야”

###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색깔공세 벗어나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확실한 진전을 원하셨다”며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제게 보고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제게 특별히 지시하셨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가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고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만 다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한 이 대표는 검찰개혁 및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법, 한국관 뉴딜과 규제혁신 및 경제혁신 관련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도 촉구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미 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이다. 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 합의로 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올해는 남북이 유



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며 “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국무회의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與 대권구도 정세균 등 제3후보 ‘꿈틀’

###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 붕괴...정세균 4% 임종석 2.2%

여권 차기 대선 선두주자의 양강구도가 무너지자, 제3후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휘청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친문 표심’이 아직 유동적인 탓에 제3후보들의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립한 여론 주자 중 유의미한 제3주자로 발돋움할 후보가 누구일지 주목된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오마이뉴스’ 의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담 대비 5.2%포인트 상승한 23.4%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5.5%포인트 하락한 18.4%,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차지했다. 이 지사가 오차범위(±1.9%포인트) 밖 선두였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1.7%)에서 이 대표(27.1%)를 크게 앞섰고, 중도층에서도 이 지사 37.4%, 이 대표 12.9%로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 대표(21.2%)는 기반인 호남에서마저 22.1%를 얻은 이 지사에 근소하게 밀렸다.

주목할 점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제3주자의 부상이다.

정 총리는 전담인 지난해 12월 조사에 처음으로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 포함돼 2.5%를 얻었고, 이번 조사에선 4%로 올랐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2.0%), 박주민 의원(2.2%)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리얼미터는 ARS 방식 조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 14명을 제시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다. 여기에는 수주간 별도의 전화면접원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자유응답’에

서 다수 호명된 정치인이거나 본조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추가된 정 총리, 이번 조사에 추가된 임 전 실장과 박 의원 모두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결국 최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등으로 인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흔들려 ‘친문 제3후보론’이 부상한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부에서 제3후보론이 등장함에 따라 정세균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 등이 언급된 것”이라며 “이 언급량은 앞으로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 듯 하다. 이 지사, 저 사람 더 거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제3후보의 관건은 ‘마의 5% 벽’을 넘느냐에 있다. 정치권에 선 대선주자로서 유의미한 지지율의 척도로 5%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결국 ‘친문 후보’에는 물음표가 붙는 이재명 지사가 30%대로 도약하는 것과, 제3후보가 유의미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도약의 발판을 얻는 것 중 어느 한 현상이 먼저 나타났느냐에 따라 여권 대선 구도가 또다시 요동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쉽게 말해 친문 지지층이 다른 후보를 물색한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로, 새로 추가된 인물들의 선전 여하에 따라 친문들의 의중이 갈릴 것”이라며 “정 총리가 만약 5%를 넘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